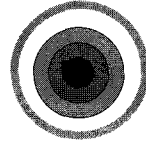


News Review

● 정부·단체 ●



물류 표준화 보급 확대 지원 시책 발표 물류체계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제고 기여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이 지난달 9월 21일 물류 표준화 보급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이 컨테이너 기준으로 연간 1백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유통과정의 규격화 내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대책의 주 내용중 하나인 표준 팔리트 보급확대는 물류비용 절감의 핵심으로 꼽는다.

공장에서 제조된 물건을 트럭에 싣고, 항구로 옮겨 하역한 다음 다시 컨테이너에 실어 적재하는 과정에서 팔리트 규격이 제각각일 경우, 작업시간과 공간 비효율, 화물적체 등 비효율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팔리트의 규격 표준화는 국내간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도 유통합리화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 팔리트 보급률이 수송용의 경우 19.6%로 유럽의 95%, 미국의 50~60%에 턱없이 못미치고, 표준 팔리트를 사용한다 하더

라도 표준 팔리트 보유량이 적고, 화물 하대 치수도 소형이 많아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형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표준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 팔리트 구입업자에게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표준 팔리트 적재화물에 대해서는 보관료, 하역료, 화물 운송료를 일정 비율 할인해 주는 것으로 4-5T급의 화물 적재함에 표준 팔리트가 효율적으로 적재될 수 있도록 광폭 적재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조달물품의 경우 포장 표준화를 실천, 정부가 민간업체에 시범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협, 농협과 판로 공동개척 등 업무제휴 柳이사장 참석리

중소기협 중앙회(회장 朴相熙)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유현기 이사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자 참석리에 10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농협중앙회(회장 元喆喜)측과 판로공동개척, 농협의 농업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 농협은 농산물 물류센터에 중소기업제품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산물 가공 원재료의 직거래 및 계약재배등을 중소기업에 알선해주며, 농산물 가공업체, 농기계 생산업체등에 자금 대출, 어음 할인, 지급보증 등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해가며, 이에 대해 기협은 가공농산물 원재료를 농협을 통하여 공동구매기로 하고, 회원 조합 업체내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 설치등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기협과 농협은 이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기협은 농협을 특별회원으로, 농협은 기협을 각각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게 된다.

한편 동업무제휴 협정 모임에 참석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유현기 이사장은 농산물 포장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정부 건의등을 상호 협력 추진할 것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농협의 골판지포장 공장 투자여력 자금은 농산물 가공공장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분야로 전환하여 줄것을 협의키로 하였다.

**수출용 원자재 기준 소요량
크라프트지 폐지고시**

공업진흥청에서는 수출용 원자재(크라프트지)기준 소요량을 대외 무역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대외 무역관리 규정 제5-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진흥청고시 제1995-502호(95.10.10)로 폐지기로 고시하였다.

- 고유번호 수출품명
- C-0-1908 Kraft paper
- C-0-1943 Kraft paper

**골판지포장조합 제64차 정기이사회
9. 28. 조달 비축자금 활용 안건처리**

지난 9월 28일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柳顯基) 제4차(연64차) 정기이사회가 조합 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현영 전무이사의 제주지역 수요 감골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원활화 대책 협의회 개최 등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 조달청 비축자금 활용 골판지원지 공동구매 약정 체결의 건

△ 9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골판지상자 지정 신청 및 단체적 계약 체결의 건

△ 1996년도 골판지포장·지가공기계전 공동주최 개최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9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골판지상자지정 추천 신청**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한 9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추천 신청서를 지난 9월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제출했다. 이 제도는 조합원의 생산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공기관등이 구매하는 골판지상

**제 10회 국제 제지기술 세미나 개최
제지연합회, 업계관계자 400명 참석**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회장 李鍾大)에서는 국제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5, 6일 양일간에 걸쳐 외국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제10회 국제 제지기술 세미나를 한국종합전시장 (KOEX)4층 대회의실에서 제지업계 및 학계, 연구소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초지 및 가공에 관한 종합적인 선진기법 소개를 목적으로 가공부문, 기계부문, 초지부문, 원질부문등 분야별로 진행하였으며, (주)팜텍, 알바니코리아(주), 사이텍 코리아, 세경물산(주) 등에서 협찬하였다.

**표준과학 연구원 물류기기 표준화 연구팀 발족
물류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원활화 기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정명세)에서는 물류기기 표준화 연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5년 9월 부터 기술경제조사 그룹내에 "물류기기 표준화 연구팀"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 및 연관업계간 물류관련 자료와 정보 교류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물

자를 협동조합과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로써, 동 골판지포장조합이 85년이래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이다.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집 간행
농검, 85개 품목 제정관리**

농산물 포장의 표준 출하규격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 농산물 검사소는 최근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집을 간행하였다. 지난 93년도부터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 관리를 담당한 이래 종래 사과, 배등 35개 품목을 개정하고, 50개 품목을 신규로 제정하여 농산물의 규격 출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정부의 농산물 포장재 구입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약 200여 품목별 원가계산 자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조합원사의 표준 출하규격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제공기로 하였다.

류기기 표준화 연구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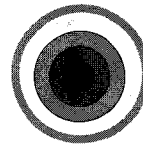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번지
유성우체국 사서함 102호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

기술 경제 조사 그룹내 물류기기 표준화 연구팀 TEL.(042)868-5411~2 FAX.(042)868-1494



News Review

● 業界動向 ●



第2回

韓·日 紙袋工業 交流 協議會 盛況 兩國 紙袋業界間 交流活性 協力方案 摸索

한국지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兪吉相)은 95. 10.9 - 10일 양일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측 지대공업 대표 21명과 일본측 지대공업대표 18명 계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 회 한·일 지대공업교류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의 주제는 「양국 지대공업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과 친목교류 방안모색」으로, 이날 회의는 한국측

대표단을 대표하여 한국지대공업협동조합 兪吉相 이사장의 인사와 일본 전국 크라프트지대공업조합 富樫綴司 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참석자 소개와 협의사항 토론이 있은후, 금풍실업 주식회사 대전공장의 시찰이 있었다.

동 협의회는 94년도 일본 도쿄의 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가 되며, 매년 교차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골판지제 펠리트 생산 공장 준공 서림 『코텍 4』 충북 음성에

골판지제 펠리트 생산업체인 (株)瑞林 (代表理事 朴聖勳)은 『코텍 4』 생산공장을 10월 12일자 완공하여 준공식을 갖는다.

공장부지 면적 8000평, 건평 1500평 규모로 60억 여원이 투입된 음성공장에서는 월평균 10만개의 펠리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골판지 펠리트 메이커인 미국의 STONE CONTAINER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생산설비를 도입 설치하였다.

(주)서림은 펠리트 판매 확장을 위해서 전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총판대리점 체제를 구축 판매키로 하고, 현재 삼성전자, 신도리코, 코오롱등과 월2만 5천개 정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선 골판지포장재 공기반 기술과제 10. 4 생기원서 1차 심의

지난 9월 통상산업부 산하 생산기술 연구원에 신청한바 있는 공업기반기술 보선(선도보유) 골판지포장재조 신기



▲ 지난 10.9 - 10일 양일간 성황리에 개최된 한·일 지대공업교류협의회 개최전경 양국 지대공업협동조합 대표자의 인사가 있었다.

술 개발계획에 대한 1차 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4일 생산기술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동 연구 총괄책임자인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조병목교수, 국립공업기술원 제지실장 정문기 연구관등이 참석한 이날 심의회에서 보선 골판지포장재의 선진국 개발동향 및 시장전망과 개발기술의 방향 검토가 있었으며, 최종발표는 10월 하순경에 연구기간 및 연구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 보선골판지포장제조기술 연구개

발사업은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3년 전부터 공반기반기술 과제로의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와 연구개발 방향을 검토하여 오다가, 1994년 통상산업부에 95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 과제로 신청하여 1995.6.16일 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5-79호로 책정 되었으며, 동 연구개발 사업은 태림포장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정동섭)의 9개 참여기업과 전기 강원대학교 제지기술 연구소, 국립공업기술원 제지연구소 및 한국식품개발원이 참여한다.

대형초지기와 코터기등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중국 및 동남아 신흥공업국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人事動靜】

◎ 광신단지

- 양한석 대표이사 ⇒ 취임
- 김광신 전무이사 ⇒ 취임
- 이정길 상무이사 ⇒ 취임

◎ 동주제지

- 박 권 이사 ⇒ 대우물산 이사 진출
- 강해원 전무 ⇒ 취임

◎ 중앙포장

- 정찬수 과장 ⇒ 부장

◎ 한은단지

- 엄봉호 상무 ⇒ 취임

◎ 대세포장

- 정경수 구매과장 ⇒ 총무부 차장
- 조호근 영업대리 ⇒ 영업부 과장
- 최인열 영업과장 ⇒ 영업부 차장
- 이 야 계 장 ⇒ 대 리

◎ 화성제지

- 김무웅 상 무 ⇒ 전 무
- 이동환 총무부장 ⇒ 이 사
- 김종인 회계과장 ⇒ 총무 차장
- 심오규 영업차장 ⇒ 관리 부장

**화성제지 코리패드 양산
월간 200만㎡ 생산, 10월 첫 출하**

골판지원지에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까지 일관 생산체계를 갖춘 화성제지주식회사(대표 李永國)가 월간 1,000M/T의 코리패드 원지와 이를 소재로 하는 200만㎡의 포장완충재 코리패드 양산체제를 갖추고 본격제품 판매에 들어갔다.

코리패드 원지는 기존 골판지용 골심지의 원질(原質)에 탄력성을 주는 공법으로 제조하여 코리패드코리아

(주)에 전량 공급하여 왔으며, 미국 코리패드사와 영국 에스톤사가 기존 스티로폴 대체제로 개발한 유연성 골판지로 성형한 완충 및 고정재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품으로 국내에서 코리패드코리아(주)가 독점 생산 및 판매 권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수도권 지역의 생산 및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음으로써 포장 완충재 분야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한솔제지 대전 백판지공장 가동
업계 백판지 구득난 해소 기대**

한솔제지(대표 具亨佑)계열 동창제지가 한솔판지로 상호변경하고, 지난 9월 13일 한솔제지의 대전 백판지공장이 준공되어 가동에 들어갔다.

한솔제지의 이번 대전공장 가동으로 연산 16만톤 규모인 한솔판지를 합쳐 연간 40만톤의 백판지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대한팔프의 연산 27만 7천톤

을 제치고 국내 최대 백판지업체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업계의 백판지 공급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0여억원을 투자하여 18개월만에 준공한 대전 백판지공장은 대전 4공단 내 6만평 부지위에 독일 술저사, 야젠 버그사로 부터 지폭 4728mm 규모의



IMD의 '95년도 세계국가경쟁력 보고서
미국 (100점) 1위, 한국 (61.8점) 24위

최근 IMD 국제경영개발 연구원 및 WEF(세계경제)포럼의 「95년도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100점으로 1위이며,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타이 등 경쟁 대상국인 신흥공업국에도 뒤진 61.8 점의 24위에 머물고 있다.

95년 세계경쟁력 순위

순위	94년	95년(점수)	순위	94년	95년(점수)
1	미국	미국(100.0)	25	스페인	아이슬랜드(60.9)
2	싱가포르	싱가포르(95.3)	26	멕시코	타이(58.3)
3	일본	홍콩(84.7)	27	아르헨티나	이집트(53.3)
4	홍콩	일본(81.1)	28	포르투갈	스페인(52.5)
5	독일	스위스(80.7)	29	터키	아르헨티나(51.6)
6	스위스	독일(79.3)	30	콜롬비아	이태리(50.7)
7	덴마크	네덜란드(75.5)	31	인도네시아	포르투갈(49.4)
8	네덜란드	뉴질랜드(75.3)	32	이태리	페루(47.6)
9	뉴질랜드	덴마크(74.8)	33	필리핀	인도네시아(47.1)
10	스웨덴	노르웨이(74.4)	34	인도	중국(46.0)
11	노르웨이	대만(72.2)	35	남아공화국	필리핀(46.0)
12	오스트리아	캐나다(71.8)	36	체코	콜롬비아(44.2)
13	프랑스	오스트리아(70.5)	37	그리스	브라질(45.4)
14	영국	호주(70.5)	38	브라질	체코(44.2)
15	호주	스웨덴(70.0)	39	헝가리	인도(42.4)
16	캐나다	핀란드(69.7)	40	베네수엘라	터키(41.0)
17	말레이시아	프랑스(69.5)	41	폴란드	요르단(40.8)
18	대만	영국(69.0)	42		남아공화국(40.8)
19	아일랜드	벨기에/룩셈(66.5)	43		그리스(38.9)
20	핀란드	칠레(66.4)	44		멕시코(37.2)
21	벨기에/룩셈	말레이시아(66.1)	45		폴란드(35.1)
22	칠레	아일랜드(64.7)	46		헝가리(31.6)
23	타이	이스라엘(62.3)	47		베네수엘라(30.9)
24	한국	한국(61.8)	48		러시아(10.0)

자료:IMD·WEF(국제경영개발연구원)보고서

독일중앙은행 금리인하 단행
대외경쟁력 약화 대응책

1995. 8월 독일중앙은행은 통화증가율이 연율 관리치 4-6%에서 (-0.4), 소비자 물가지수 연초 2.4%에서 2.1%로 떨어졌다는 표면상의 이유로 재할인율을 인하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인하에 이은 두번째 조치이다. 그러나 재할인율 인하의 이유는 마르크화 초강제로 독일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 주요 금리인하 추이

